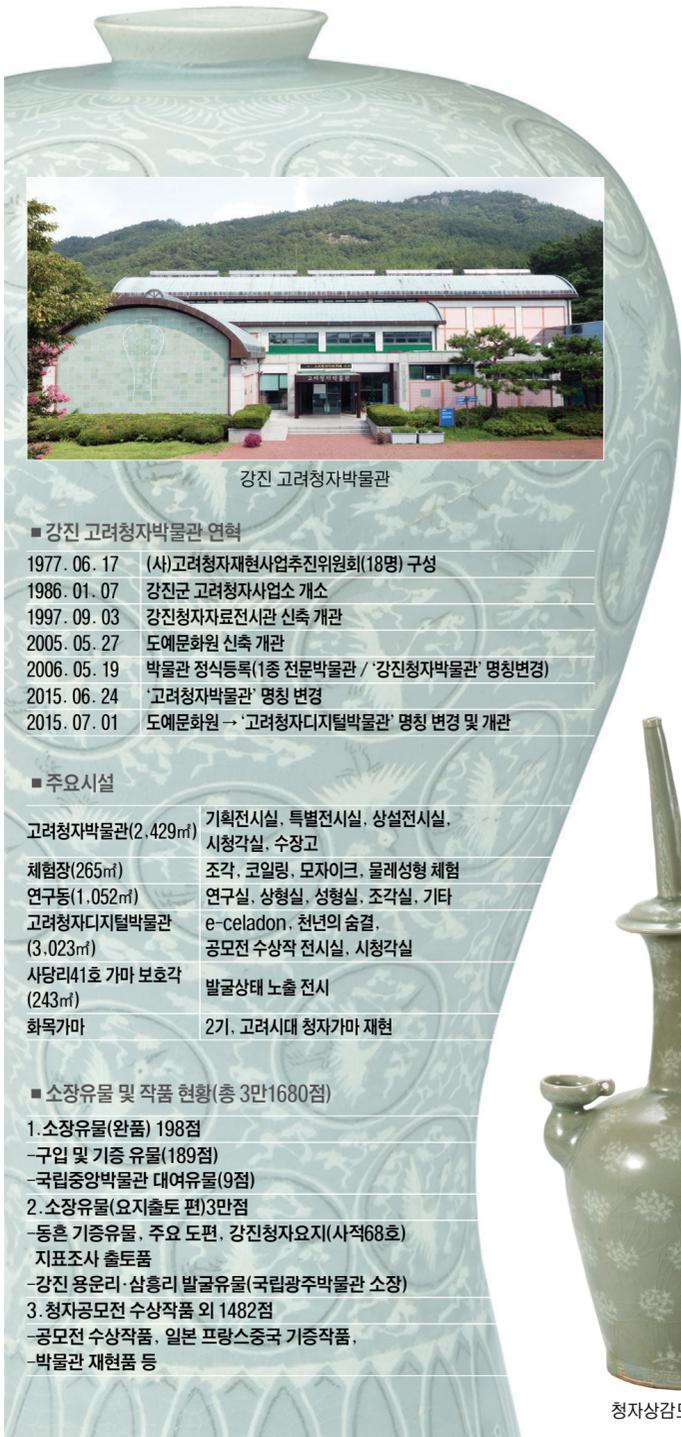


'천년의 빛' 지켜온 고려청자박물관... 국립박물관 승격돼야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 강진 고려청자박물관 연혁

1977. 06. 17	(사)고려청자재현사업추진위원회(18명) 구성
1986. 01. 07	강진군 고려청자사업소 개소
1997. 09. 03	강진청자자료전시관 신축 개관
2005. 05. 27	도예문화원 신축 개관
2006. 05. 19	박물관 정식등록(1종 전문박물관 / '강진청자박물관' 명칭변경)
2015. 06. 24	'고려청자박물관' 명칭 변경
2015. 07. 01	도예문화원 →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 명칭 변경 및 개관

■ 주요시설

고려청자박물관(2,429㎡)	기획전시실, 특별전시실, 상설전시실, 시청각실, 수장고
체험장(265㎡)	조각, 코일링, 모자이크, 물레성형 체험
연구동(1,052㎡)	연구실, 상형실, 성형실, 조각실, 기타
고려청자디지털박물관(3,023㎡)	e-celadon, 천년의 숨결, 공모전 수상작 전시실, 시청각실
사당리41호 가마 보호각(243㎡)	발굴상태 노출 전시
화목가마	2기, 고려시대 청자가마 재현

■ 소장유물 및 작품 현황(총 3만1680점)

1. 소장유물(완품) 198점
 - 구입 및 기증 유물(189점)
 - 국립중앙박물관 대여유물(9점)
2. 소장유물(요지출토 편) 3만점
 - 동흔 기증유물, 주요 도편, 강진청자요지(사적68호) 지표조사 출토품
 - 강진 용운리·삼흥리 발굴유물(국립광주박물관 소장)
3. 청자공모전 수상작품 외 1482점
 - 공모전 수상작품, 일본 프랑스중국 기증작품, 박물관 재현품 등

강진군 40년간 재현·발전 공헌
막대한 재정부담에 한계 부딪혀
대표 문화유산 맥 잇고 세계화 필요
국가 차원 체계적 연구·보존 절실

겨울이다. 올 들어 가장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2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은 천년의 빛으로 가득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22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두 달간 1층 상설전시관 테마전시실에서 '강진(대구면)사당리 고려청자' 전시회를 열고 있다. 같은 시간 고려청자의 산실인 강진군 대구면에 있는 강진고려청자박물관은 인적조차 드물 정도로 험한 모습이었다.

전국에서 유일한 고려청자박물관이지만, 조그마한 시골 자치단체인 강진군에서 운영해야하는 탓에 인건비 조달조차 쉽지않을 정도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강진군은 수년째 정부를 상대로 청자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고, 국가에서 직접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다.

강진군은 매년 기본 운영비로만 2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청자박물관 운영·유지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정부지원이 없는 한 조만간 지난 20여년동안 고려청자의 역사 지킴이 역할을 해온 청자박물관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것이다.

하지만 강진청자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강진 대구면은 청자 기와를 비롯한 타일, 배개, 항로 등 현재 우리나라 국·보물로 지정된 최고급품의 청자 유품과 동일한 편들, 그리고 고려왕시대가 관련된 명문(銘文)이 있는 편들이 처음으로 다량 발굴된 역사적 의미가 큰 지역이라는 점에서 국립박물관 승격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려청자의 산실 강진=고려청자는 강진에서 대량 발굴된 이후 우리나라 대표 문화유산으로서 교과서에 소개됐으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 국의 우수한 청자 문화를 알리는 유물로 자리잡게 됐다.

강진 사당리는 고려왕실에서 사용한 청자를 생산한 가마터로 유명하다. 가마터는 1964년 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일대에서 청자기와가 발견되면서 그 화려한 모습을 드러냈다.

덕분에 국립중앙박물관은 1977년까지 이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무려 10만여점에 이르는 청자편과 일부 백자편을 수습했다. 고려 청자의 모든 것이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것이다.

◇고려청자 아름다움 한껏 소개하는 테마전=국립중앙박물관이 이번 테마전을 통해 소개하는 전시품은 200여 점이다. 사당리 가마터 출토품 중에서 엄선한 도



청자상감매로학점문사이호



자편을 비롯한 청자명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 중 '청자기와'는 1157년 "양이정에 청자기와를 덮었다"는 '고려사'의 기록을 입증해준다.

인종(1122~1146 재위) 장릉에서 출토됐다는 '청자 참외모양 병'(국보 94호)이나 '청자 연꽃모양 항로', '청자 용무늬 매병' 등과 매우 비슷한 청자편은 강진 사당리의 출토품이 전성기 고려청자의 원형이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다.

◇현존 고려청자 국·보물 80% 강진=강진은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고려청자의 본산이다. 9세기부터 14세기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도자문화를 꽃피운 지역이다. 고려시대 왕실관요이자 대량생산체제를 갖춘 곳으로 당시 가마터만 188개가 강진에 있었다. 현존하는 고려청자의 국·보물 80%도 강진 산이다.

강진군은 이 같은 고려청자의 역사적 맥을 잇기 위해 지난 1977년부터 고려청자 재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강진군은 정밀지표조사, 고려청자박물관 건립, 개인요 업체 지원, 고려청자문화특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중이며, 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만큼 지역문화재를 활용한 산업화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강진군은 요즘 한계에 다다른 모습이다. 국가에서 지정·관리해야할 고려청자를 박물관까지 만들어 운영하다 보니 세계화·커녕 현상을 유지하는 데도 인력은 물론 재정적인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고려청자 문화 보존·전승사업...국가 주도 절실=인류가 흙과 물, 불로 만들어낸 위대한 창조물이자 뛰어난 예술적 감각이 구사된 미술품인 고려청자는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게 강진군의 의견이다.

강진군은 국가가 더 이상 강진의 고려청자 발전에 대한 노력을 방관해서는 안 되며, 고려청자 문화의 보존·전승 문제에 전향적으로 접근할 시점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지난 2007년부터 고려청자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은 1970년대 고려청자의 재현을 위한 고려청자사업소로 시작해 1997년 9월 강진청자자료박물관으로 개관했다. 이후 2006년 강진청자박물관이란 명칭으로 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된 뒤 올해 고려청자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호남권에 과도하게 국립박물관이 밀집돼 있다는 점과 해당 지역의 고도(古都) 여부, 전시기능한 유물수량 부족, 관람객수 미흡, 타지역 공공박물관의 국립박물관 승격 요구 급증 우려 등 각종 핑계를 대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국립박물관 승격만이 고려청자 맥 잇는 길=강진군은 호남권에 국립박물관이 많은 것은 문화유적이 그만큼 많은 지역적 특수성이 있다는 점과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국립박물관 승격요구 급증 우려에 대해서도 재정상 어려움에도 박물관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강진군의 노력을 배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은 또 전시 유물 수량은 국립으로 승격되면 오히려 많은 유물의 확보가 가능하고, 관람객수도 시설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할 경우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고 성공 운영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기초 자치단체인 강진군이 재정압박에도 우리나라 대표문화유산인 고려청자의 발전과 보존, 재현에 헌신해 왔다는 점을 상기하길 바란다"면서 "정부 관련 부처의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kwangju.co.kr

소촌동 모아드림아파트 |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 KTX 5분거리
- 광주시청 10분거리
- 나주혁신도시 20분거리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 · 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

- 가격은 500만원대
- 풍부한 임대수요
- 우수한 교육환경
- 선착순 동, 호수지정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아파트

온세계 아파트

문의 062 383-6400